

시는 인간을 위안해 줍니다

—미주문학(07. 여름호)의 시

정호승

(시인)

《미주문학》을 처음 읽고 이 글을 쓰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쓰는 이 글은 작품평이라기보다 미주문학 회원들이 쓴 시를 읽고 나 나름대로 시에 대한 단상을 쓰는 글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쓰는 제 글을 그렇게 독후감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평론가가 아니고 저 또한 시를 쓰는 한 사람 시인일 뿐입니다.

저는 《미주문학》을 통해 여러분들의 작품을 처음 읽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 까닭이야 어떻게 조국을 떠나 사는 재외한국인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에 관심이 많고 실제 또 많은 분들이 시인으로서의 삶



시인. 1950년 대구 출생. 경희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 졸업.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에 동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에 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이 당선돼 등단.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포옹』, 시선집 『내가 사랑하는 사람』 등 다수.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 수상.

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의 한국문학 속에 미주문학을 미처 포함시키지 않은 제 잘못이 큼니다. 이 지구촌 어느 곳에 살든지 한국어로 씌어지는 문학은 한국문학 속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제가 그 점을 간과했습니다.

새삼 시는 인간 삶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 봅니다. 시를 쓰지 않고 살아도, 또 시를 읽지 않고 살아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떠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시를 쓰며 살고 있는 까닭은 아무래도 시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도 ‘내가 왜 시를 쓰고 있는가’하고 자문자답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왜 머나먼 미국 땅에까지 와서 살면서 모국의 언어로 시를 쓰고 있는가’하고 잠 못 이룬 밤이 많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시가 나를 위안해주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울 때 누구나 위안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통해 위안을 받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라는 말에 빗대어 표현해보는다면, 저는 시를 통해 위안을 받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는 제게 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습니다. 신은 기쁨을 주실 때 내게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 주신다고 하는데, 제 경우엔 시를 통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미주문학> 여름호에서 저는 삶의 고통의 편린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작품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시는 결국 한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의 총체적 고통에 의해서 씌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밥을 먹고 살듯이 시 또한 고통을 먹고 자랍니다.

시는 인간의 슬픔 또는 비극을 먹고 자라는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일상에 깔려 있는 고통의 빗장을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함부로 밖에 돌아다니다간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리
어차피 죽는 것은 운명이려니
지금 식탁 위에 차려진 살점들도
우리의 만찬을 위해 기다려 오지는 않았을 터

구자애의 「한국식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다운타운이 텅 빈 인디언 썸머 기간에 가족들이 모여 삼겹살을 구워먹고 있는 풍경이 시의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돼지의 기름을 빼내듯/ 사람의 진액을 빼낼 정도로 몹시 뜨거운 여름날, ‘구워진 고기를 한 점 한 점’ 먹다가 갑자기 ‘맥주잔 속 기포처럼’ 시원해지고 싶어 창문을 엽니다. 창문 뿐만 아니라 ‘현관문도 열어 제치고/ 엉켜 있는 마음도 풀어 제치고/ 울타리도 걷어’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함부로 밖에 돌아다니다간/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리’를 문득 생각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먹다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리’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 시는 큰 아픔을 던져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먹을 때 인간은 그 순간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 시의 화자는 느닷없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총 맞아 죽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 죽음 또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유 없는 죽음입니다. ‘어차피 죽는 것은 운명’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마저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식탁 위에 차려진 살점’ 즉 돼지들도 ‘우리의 만

찬을 위해 기다려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삼겹살과 동일시합니다.

물론 죽음이란 느닷없이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찾아온 비수’와 같은 것입니다. 한자 죽을 사(死)를 살펴보면 저녁 석(夕)자와 칼 도(刀)자가 한데 합쳐져서 형성된 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화자는 왜 그런 죽음을 생각했을까요. 저를 그것을 이민자만이 겪을 수 있는 격심한 고통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한 이민자가 쓴 수기에서, LA에서 강도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라이프 머니’를 준비하고 다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쪽저쪽 호주머니 속에 달러를 넣어두었다가 강도가 달라고 할 때 얼른 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수기에는 바로 몇 발자국 앞서 먼저 걸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총에 맞아 죽어가는 이를 지하주차장에서 몰래 지켜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떨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아, LA에서의 이민생활이란 이런 생존의 긴장감을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생활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물론 전혀 그렇지 않는 국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시에서 고통도 고통이지만 생존을 위한 비장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묘미는 실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방 뚫린 잔디밭 위에 돛자리 깔고 눕는다
소쿠리에 담아온 주먹만한 자두가
실컷 울고 난 눈자위처럼 붉다

옆집 흑인 아줌마, 물끄러미 우릴 쳐다본다
'어여 하나 먹어 봐' 어머니가 여자 손에
실한 뎀으로 냉큼 하나 쥐어준다
알아듣기라도 한 듯 탕큐하며 환하게 웃는
여자의 하이얀 이가 아리랑처럼 은은하다

이 시는 '충 맞아 죽을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하면서도 이웃과의 교감을 이루려는 화자의 순수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한국의 이웃여자인양 미국의 흑인여자에게 "너도 어여 하나 먹어 봐!" 하고 자두를 건네는 '한국의 어머니' 모습이 눈앞에 환히 떠올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마 이 시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을 파고든 것은 바로 이 '어머니' 때문일 것입니다. 이웃집 흑인여자에게 자두를 건네는 어머니의 행위 속에는 이민생활자의 눈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띤 것은 바로 그 애환의 눈물 속에 있는 웃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전반부에서는 이국에서 '충 맞아 죽는 죽음'을 운명으로 생각할 만큼 비장했지만, 그 비장함의 한편에서는 유머와 해학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감동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흑인여자의 하이얀 이가 아리랑처럼 은은하다'라는 구절은 뛰어납니다. 이 구절은 이 시인의 비유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하이얀 이'는 시각적인 것인데, 시각적인 것을 청각적인 것으로, 그것도 아리랑 가락으로 나타낸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리랑'으로 의미되는 모국에 대한 특별한 그리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여자조차 한국의 여인으로 껴안아버리고자 하

는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속에 이미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시는 가식보다 진실에서 더 감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평소에 시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으로 잠시 뒤흔들어놓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를 읽다가 내 삶의 어느 한 부분과 일치된 부분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일치된 지점에서 서로 깊은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그 시의 감동은 배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시를 놓고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란 사람의 마음을 한번쯤 흔들어놓은 것이 아닐까요.

멸치를 다듬다가
내장(內臟)째 말라 비틀어진 멸치를 다듬다가
딱딱하게 굳은 몸뚱어리
바다의 그 찝찝한 간기 아직 끈적이며
마지막 남은, 한 숨 버티느라
지 몸뚱이보다 몇 갑절은 더 크게 부릅뜬 눈을 본다

온몸의 물기 쥐어짜던 땀별 그 갈증에도 포기하지 않고
호랑이가 열두 번 물어가도 두 눈 부릅뜨면 살 것 같아
예까지 또룩또룩 버터 온
저 눈!

팔팔 끓는 물을 뒤집고 있구나.

이 시는 문인귀의 「멸치는 절대로 눈을 감지 않는다」 전문입니다. 시인은 멸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다듬

고 있는 멸치는 이미 죽은 멸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멸치가 눈을 뜨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이렇게 죽음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바로 시의 힘입니다. 이 시는 멸치가 죽지 않고 아직 살아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됩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시가 ‘발견’된 것입니다. 시는 발견되지 않으면 애초에 씌어질 수 없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인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는 우리의 일상 속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마치 이미 신이 존재하고 있듯이 시는 이미 우리의 일상적 삶의 도처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시는 쓸 수 없습니다. 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까요.

시를 발견하기 위해서 굳이 멀리 손을 뻗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나의 삶속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시는 나의 삶속에 항상 살아 있으며,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 한번 주는 바로 그 자리 그곳에 시는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시를 쓰기 위해서는 시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안테나를 높이높이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마리 멸치에서 바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멸치가 헤엄치며 놀았던 광활한 바다의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미 멸치와 형제 멸치들의 눈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를 발견하는 마음입니다. 문인귀 시인은 멸치가 ‘팔팔 끓는 물’조차도 ‘뒤집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시인이 멸치를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한 비록 펄펄 끓는 물이라 할지라

도 멸치에겐 넓고 푸른 바다일 뿐입니다. 결국 이 시에서 멸치는 누구이겠습니까. 멸치는 바로 이민자의 삶을 사는 시인 자신이거나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는 사물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를 원합니다. 시는 어떠한 현상의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는 자를 원합니다. 문인귀 시인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독자는 다 안다

—미주문학(07. 여름호)의 단편 소설

황충상

(소설가)

《미주문학》여름호에 발표된 세 분의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왜 자꾸 마음의 눈물이 날까. 그것은 문학의 종합성이 감정을 끌어 모아 쥐어짜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민사회의 정한이 신변 잡기의 정한에 머물지 않고 문학으로 승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 분의 소설은 성공적이다. 물론 성공이란 기준이 모국어의 운용 능력과 더불어 국한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민 소설의 정서가 이만하기까지 그들의 작가 정신이 내적으로 얼마나 치열했을까 짐작이 가면서 절로 머리 숙여진다.



소설가, 한국사이버대, 경기대 겸임교수. 《문학나무》 주간.

죽음은 최대의 자유다

—김명선 「존재의 자유」

「존재와 자유」를 읽으면서 나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 그 아슬한 학창시절의 기억 속을 잠시 헤맸다.

‘존재는 없는 것으로 환원되고자 하는 과정이다’

이 대전제를 규명하려 들었던 글들은 인류 역사상 너무도 많이 씌어졌다. 어떤 해답이 있었던가.

‘너는 없던 것이 생겨나 본래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고작 이런 정도로 철학과 예술은 존재 규명에 대하여 이바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대 젊은 의식들은 냉소적이다. ‘그래, 그 어리무중한 질서와 규범이 어쩐다는 것인데’ 답을 구하지도 않고 무관해 한다. 이제 세상의 어떤 일이나 예술도 이들에게 어쩐다고 설명하거나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어쩐다로 보이는 그것을 보여줄 뿐이다.

김명선 씨의 「존재의 자유」를 세 문장으로 축약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꿈처럼 살다가 꿈처럼 간다. 그것이 존재의 자유다. 그래서 죽음은 최대한의 자유다’

남편의 부재 속에서 아들을 의사로 잘 키웠다고 자랑하던 어머니 장지순. 인간적인 영화의 삶을 목전에 두고 아들이 교통 사고로 죽는다. 그리고 별리의 고로 혈액암을 얻어 죽은 장지순은 아들과 합장되므로 존재의 영원한 자유세계로 들어선다. 그리하여 죽음은 자유세계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존재의 자유」를 부분 인용해 본다.

‘짤랑짤랑’

하관식을 집례하는 목사가 종을 흔들었다. 서쪽 하늘에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종소리가 넓게 퍼져갔다. 검은 새 한 마리가 높게 높게 퍼덕이며 비상했다. 사람들이 관 모서리를 돌며 들고 있는 꽃을 던지는 순서다. 죄와 고뇌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구렁이 허물을 벗듯 육신을 벗어버린 그녀, 참 자유를 얻어 훨훨 날아간 그녀에게 마지막 작별의 꽃다발을 안기는 예식이었다.

죽음 속으로 참 자유를 얻으려 날아간 한 영혼의 노래를 통해 작가는 이생의 남은 영혼들의 자유를 점검하고 위로한 것이다.

이민 여정의 글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절제미학의 일인칭 소설

— 최문항 「골목대장」

할아버지가 사는 옆집 김씨네 뒷방에 어린 조나단이 엄마와 이사 왔다. 골목이 시끄러워졌다. 조나단이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골목을 누비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신경이 쓰이던 조나단과 서서히 친해졌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그렇듯 할아버지는 조나단의 마음을 읽고 조나단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기에 이르렀다.

이 아름다운 인연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자 한다. 마침내 할아버지는 조나단이 스케이트 보드 콘테스트에 나가도록 후견인이 되었다. 그러나 과로한 할아버지는 시합하는 날 응원하러 갈 수가 없다.

“조나단, 저기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에 불도 켜 놔라.”

내(할아버지)가 기어들어가는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조나단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돌아서는데 벌써 빨간 불자동차가 집 앞에 도착했다. 네댓 명의 소방대원들이 방안으로 몰려 들어오더니 나를 반드시 눕혀놓고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주사를 놔주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이 조금 풀리면서 사르르 잠이 왔다.

「골목대장」의 정서가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연상시키는 까닭이 뭘까. 생에 대한 관조가 어느 경지에 이르면 서로 통한다는 것이다.

일인칭 소설이 이만큼 감정절제를 보이기는 쉽지 않다. 생의 관조가 넉넉하다. 우리말 문장도 순박하고 정직하다. 어린 조나단의 노는 모습이 눈에 밝히도록 묘사되고, 가정사도 정확히 단면만 보여주었다. 이민자의 녀두리는 절제시키고 정한만 그려놓은 솜씨가 만만치 않다. 소설의 종장도 상상을 증폭시켜준다.

‘어린 조나단이 시험에서 우승을 할까.’

온전히 독자의 상상에 맡겨진 뭉치다. 단편미학의 이해와 깊이를 엿보게 하는 가작이다.

여자의 베일 뒤쪽 이야기

— 김옥란 「이브의 숨은 그림」

인생에 있어 과거는 누구나 슬퍼서 감추고 싶은 것과 아름다워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슬퍼서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는 문 교수의 아내는 이민 와서 선망의 대상이다 싶게 성공적인 삶을 산다. 화가로서 전시회 수입을 불우이웃 돕는 단체에 기부하는 그녀의

인품을 백인들도 흠모한다. 그런데 뜻밖에 고교동창인 인숙이 남편 친구 부인으로 나타나 그녀의 과거를 확인하러 든다. 이에 문 교수 부인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그러다 갑자기 문 교수가 심장마비로 죽고 장례식장에서 문 교수 부인은 자신이 인숙의 고교동창 민자임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인다.

“인숙아”

작고 떨리는 음성이 내 귓전으로 스쳐갔다. 순간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숨을 가다듬게 했다. 처음부터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고마워—.”

그녀의 음성은 여전히 신음처럼 내 귓전에서 떨고 있었다.

유년의 가난과 어두운 환경이 그녀의 자아를 숨은 그림으로 만들었다는 이 이야기는 인간 심리의 이중성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곱씹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숨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브의 숨은 그림」은 그 많은 여자의 숙명적인 이야기 중 하나이다. 이민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문 교수의 아내는 동창 인숙에게 숨은 그림으로 과거를 덮어두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내재된 일반적인 인간성이다. 이 인간성에 대한 문제의식, 실험의식이 좀 더 작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소설이 되지 않았을까.

소설은 역시 이야기이다. 공감의 축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위해서 헤밍웨이의 말을 상기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친다.

‘소설가가 조작한 곳을 독자는 다 안다. 그러므로 사기 친 곳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자는 소설가 자신이다.’

변별적 소재 선택

—미주문학(07. 여름호)의 수필

하길남

(수필가, 문학평론가,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이사)

1. 머리말

수필에 있어서 소재 선택은 수필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까닭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소재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써야하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체험했다 하더라도 나보다 먼저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써야 옳다. 한번쯤 경험해 봤다고 해서 사계의 전문가를 따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자기만의 독특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신중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한국수필문학가협회 이사,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이사, 한국수필문학대상 및 월간수필문학상 등 수상. 수필집, 비평집, 문학이론서, 수필작법 등 12권 펴냄. 현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수필창작 전담교수.

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작가가 이러한 소재로 작품을 쓰겠다고 의식에 잡힌 소재, 이미 즉 주제의식이 가해진 소재를 우리는 제재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옷’에 대해 글을 한번 써보겠다고 한다면 옷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그대로 늘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옷에 대한 그 작가의 특유하고 참신한 체험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작가가 옷에 대한 글을 쓰면서 제목을 ‘누워있는 옷’라고 했던 것을 필자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수필이 늘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작품의 참신성과 치열성 또는 차별성 덕분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모두 옷걸이에 걸려있는데 오직 그 옷만이 ‘누워있었다’는 것이다. 이 옷을 사람 또는 우리의 일상과 대비해서 쓴 수필이었다. 이렇게 소재 그 자체가 이미 독자들의 눈을 끌 뿐 아니라 작품의 전개과정에서 차별성이 부각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소재 즉 제재는 그 작품의 성패를 가름한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2. 박봉진 님의 「줄 없는 두레박」

우선 ‘두레박’이라는 흔하지 않는 소재에 독자들은 흥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줄 없는 두레박’이라니 한 번 더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게 된다. 지금은 사실상 두레박이 한낱 골동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저 먼 오지 같은 곳에서도 수돗물이 나오는 세상이니 말이다. 그래서 화자는 줄 없는 두레박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 두레박의 비유적 상상력

- (1) 육지에 올라와 있는 배
- (2) 전설의 비익조(比翼鳥)
- (3) 불안전한 것을 타고난 것.
- (4) 장기라곤 생김새처럼 어느 방향이든지 잘 얹어지는 것 등

2) 사용상 그 속성에 따른 상징적 상상력

- (1) 글을 펴오고 펴주기도 하고
- (2) 그림도 펴주고
- (3) 음악도 펴주고
- (4) 토방에 모인 문학하는 애기로 줄을 꼬며 밤을 늦춘다.
- (5) 달샘에 보름달을 띄어놓고 '달샘의 서정을 나누고자하는 두레박
- (6) 목 마른 길손에게 버들잎 띄운 샘과 사람과의 사이를 분주히 오가는 벼들의 북이다.
- (7) 산 역사의 고향이며 태어남의 산실이다.
- (8) 줄은 능력의 산실이며 귀한 인연의 씨줄과 날줄이다.
- (9) 점령군에 무장해제를 당한 것처럼 줄을 풀었으리라.

3) 두레박에 얹힌 속설

예부터 펴 올린 샘물 인심은 후했지만, 흘러드는 봇물 인심은 설핏하면 물꼬 시비를 벌리고 아전인수로 시치미를 떼곤 하지 않았든가.

- 4) 로프 줄에서 다시 나이론 줄이 바뀌었다. 두레박줄을 새 줄로 가라 맴에 따라 사람들의 옷차림도, 사는 모양까지도 달라져갔다.
- 5) 연줄 없이도 뜨는 연 같다. 손가락 끝으로 갈작거리기만 하면 세상 어디로도 종횡무진 내달는다. 두레박이 목시의 말을 한다.

독자들 모두 두레박에 대해 이만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글을 일찍 본 일이 없을 것이다. 특히 평자가 밑줄을 친 '벼들의 북'이라는

비유는 과히 일품이라 하겠다. 흔히 우리들이 문학적 형상화기 미적 정돈이니 하는 말은 결국 사상성보다 표현의 기술에 힘입는 만큼, 이 수필은 그러한 범주에서 이해된다. 이 수필의 근간을 이루는 상상력은 가히 일품이라 하겠다. 특히 이러한 ‘두레박의 속성인 물 펴오고 펴오기의 이력을 토방에 모인 문학 이야기’까지 접목하면서 마침내 이 수필의 궁극이 우리의 수필쓰기의 한 광장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한 것은 또 하나의 병치적 상징의 담론이 되었다.

그러나 상징의 물고기도 너무 물에서 멀어져 물에서 오래 방황하게 되면, 고사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기게 하는 성공한 작품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화자의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알 만한 가작이다.

3. 정찬열 님의 수필 「빠꾸기가 웃네요」

빠꾸기는 수필의 소재로서 증층적 의의를 갖는다. 자기 새끼를 남의 어미가 품어 키울 수밖에 없는 조류이기 때문이다. 다른 새가 새끼를 품게 하여 종족을 번식하는 묘한 모반의 새인 것이다. 말하자면 아빠 빠꾸기는 다른 어미 새가 해야 할 일을 자기도 못하고 남에게 의뢰해야 하니 참으로 고달픈 신세다. 그것도 대가를 지불하고 정정당당하게 양육을 부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몰래 일을 처리해야 하니 제 새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를 일이다. 그럴려면,

새끼가 걸음마를 할 때쯤 제 새끼를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만만한 놈이어야 한다. 그 래서 자신보다 작고 힘이 약한 새를 대리모로 고른다.

빠꾸기의 대리모는 뱀새다. ... 뱀새는 몸집이 빠꾸기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 엄마 빠꾸기는 며칠이고 뱀새 집을 땀들다가 뱀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얼른 들어가 몰래 알을 낳는다.

인간으로 말하면 암체가 아니라 도로(徒勞)요 기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생명체로서의 생래적 본성이라니 그 또한 섭리이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뱀새는 마냥 눈 먼 희생자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삶의 해석은 다분히 인간적인 것일 뿐, 그들 조류들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생의 법칙이 있을는지 모를 일이다. 자연이 섭리를 우리는 모두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금까지 진리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사실은 허위였다는 사실이 수없이 밝혀지고 있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비근한 예로 우리 인체에서 맹장이란 필요 없는 장기라 하여 탄생과 동시에 이를 잘라버리곤 했다. 맹장염이라는 병소만 조장할 뿐, 귀찮은 존재라는 것이 제거의 이유였다. 그러나 맹장이 인체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를 떼내는 일이 중지된 사례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은 아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아는 것이다. 새들도 남의 은공을 체득하면서 그만큼 다른 새들에게 적선을 하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뱀새 품에 있을 막 갸 새끼가 보고 싶어 가슴이 탄다. 그래서 피를 토하며 운다. 뽀뽀, 뽀—뽀뽀.

그렇다. 그 소리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말이다.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비극이 수를 놓기 때문이 아닌가. 비극이 없다면 세상에 값나가는 어떤 것을 생산해 낼 수 있겠는가. 구세주 예수의 수

난도, 석가의 해탈도 인간의 죄와 무지 때문에 이루어진 빛나는 승려의 업적이 아닌가. 그것이 존재의 도리요, 세상사인 것이리라.

여기 대리모를 통해 아기를 얻은 토마스 캐런 부부의 경사도 어찌 예외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수필의 제목이 ‘빠꾸기가 웃네요’인 것이다. 피를 토하면서 슬피 울던 빠꾸기가 왜 웃겠는가. ‘빠꾸이가 웃을 차례’.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같이 웃게 되는 것이다. 웃음의 의미를 각색해준 허허로우면서도 맛 나는 수필이다.

4. 지희선 님의 수필 「아름다운 불화」

역시 제목 즉 소재가 묘하다. ‘아름다운 불화’라니 반어법의 일종이 아닌가. 물론 이 구절은 “지혜의 발자취”에서 따온 말이다. ‘때로는 불화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때 불화는 곧 화해로 전환되는 것이다. 불만 그 불화의 밑바탕에는 불편 미움의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니 역시 용서에 의해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아닌가. 미움은 먼저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풀어야 할 사슬인 셈이다.

심지어는 좋은 뜻으로 모인 친구들이 서로 외면하는 사이가 되기도 한다. 왜 이런 일어나는 것일까. 삼십대의 의문이었다. ... 여기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화법’ 즉 겸손과 온유함을 그 답으로 제시해 주었다.

사람들은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도 모두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만이 옳다는 생각은 참으로

이상한 논리가 아닐 수 없게 된다. 물론 단순한 사건에 대해서도 서로의 생각이 같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생각의 양식이 다르다는 증거이듯이 개성이라는 것도 서로 다른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주장만 하는 이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때를 쓰는 이들만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정답이 꼭 하나 뿐이라는 논리만큼 위험한 사상은 없는 것이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의 죄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이 절대적 진리도, 그 명제도 절대일 수는 없다 하겠다.

신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번만은 너희들의 죄를 그냥 용서하여 주겠다, 즉 불문에 붙이겠으니 두 번 다시 그런 죄과를 범할 때는 스스로 그 죄과를 혹독하게 묻겠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신은 인간에게 하느님의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극한 상황을 선택했을 뿐인 것이다. 형벌의 선택권이 어찌 하느님에게 없겠느냐 말이다.

근래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살피는 수필이나 불교의 교리를 말하는 작품들을 적잖이 대하고 있다. 불과 십여 년 전만해도 이런 작품들은 사실상 보기 드물었다. 아니 보기 드물다기보다 오히려 금기시해 해온 풍토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이제 종교수필이 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님은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서툴더라도 화목하게 일을 해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다.

여기에 신의 뜻이 있는 것이다. 신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 있는 그 수난의 극치를 몸소 실천하므로 인생들이 세상살이

에서 당하게 될 고초를 이기도록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배려했던 것이다. 십자가의 고통이 그것이다. 이보다 더한 고통은 세상에서나 천상에서 다시 없는 극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참을 수 있을 능력과 그 사례를 몸소 실천해 보인 것이며 진정한 사랑의 이치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 보게 된다.

체면이나 형식을 위한 바리사이파인가. … (1)

스스로 즐거움에 도취된 자기 만족주위자일까. … (2)

신앙을 지니고 겸손하게 일하는 참 봉사자일까. … (3)

하고 말이다. 여기서 깨닫는 ‘고집을 꺾지 않고 공존하면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진리를 거듭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제 더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 수필 또한 그러한 인간상의 함양을 위한 도정이라는 것을 말이다. 여기서 예술지상주의자와 인간주의 예술을 떠올리게 되지만, 수필은 결국 수필하는 자의 인간적 자기향방의 문제일 수밖에 없음을 새삼 그려보게 된다. 화자는 이 아름다운 불화의 상징을 ‘태양과 비가 하늘 정원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피워 올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정몽주의 단심가’에서 ‘이 방원이 하여가’로 변해가는 화자의 역설적 역설이 이 수필을 조망하고 있는 결론에 이를 것을 믿는다.